



濁流清論

제12호 2011년 3월 7일(월)

발행인 : 김철환 / 편집 : 편집위원회

< 알려드립니다 >

◇ 제 36차 교수회 대의원회

- 일시 : 3월9일(수) 12:00
- 장소 : 교직원식당 오크룸

◇ 현수막 시위는 3월 1일부로 잠정적 중단합니다. (관련 : 13page)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는 교수회 이메일 (lisani@ajo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의장 취임 인사말 “내가 없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1
교수회 의장 이임 인사말	2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대담 “혼란의 문턱을 넘어가는 길”	3
학교 및 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자문 내용	12
예산 자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12
현수막 시위를 중단하며	13
소 식	14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16

편집위원회 : 한호(편집책임),
강명규, 구형건, 김혜선,
이재호.

의장 취임 인사말

“내가 없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교수회 의장을 맡으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년을 한 학기 남겨놓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미망 가운데 하나가 “제대로 된 논문” 한 편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 동안 관심 가졌던 분야를 제대로 정리하고 싶은 욕심 말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아마도 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스스로의 미천한 능력과 천부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저는 이러한 욕심이 한갓 미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저는 당혹스럽고 두렵습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품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보듬지 못하는 제가 500여명의 동료 교수를 대표한다는 점은 천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학교에 오랜 기간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밥값도 못한” 제가 정년을 눈앞에 두고 교수회를 대표해야 하는 일은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수회 의장의 책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기 어려운 온갖 궂은일을 동료 교수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상식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논문”은 타고난 재주가 있어야 쓸 수 있지만 학문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뛰어 다니면 되리라고 마음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뛰어다닐지에 대해서. 저의 기본적인 원칙은 교수회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바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하여 두가지 사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원들의 축복 속에서 총장이 선출되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비록 단기간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우리 학문공동체에

따리를 틀고 있는 독선의 종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3년간 우리 아주대학교를 퇴행으로 몰고 간 윤원석 이사장의 독선 뿐 만 아니라 우리 교수사회 내부 일부에서 솟아나는 독선도 종식되어야 합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대위원회와 분회를 통하여 “우리”의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견이 조율되고 결정되면 밀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깃발만 나부끼고 사람은 안 보인다”는 자조는 우리 공동체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가능하니 부디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내가 빠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아주대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은 현재 아주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자 자존심의 구현입니다.

2011년 3월 2일 교수회 의장 김철환

교수회 의장 이임 인사말

교수님들께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내내 조용하던 교정 곳곳에서 학생들의 밝은 웃음이 들립니다. 신입생들의 호기심 가득한 모습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음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오늘로써 제가 교수회 의장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우리 대학이 더욱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함께 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자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던 분들께는 너그러운 해량을 구하고자 합니다.

학내에는 여전히 구성원의 관심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새 학기에 새로 구성되는 교수회 및 대학 평의원회장단에게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학내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이 형통하고 댁내에 두로 평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28일 박영무 올림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대 담

“혼란의 문턱을 넘어가는 길”

사 회 : 강명구 (사회과학부)

대 담 : 김장훈 (건축학부), 김혜선 (자연과학부), 이재호 (의학부)

참 관 : 한 호 (인문학부)

강명구: 오늘 저희가 세 분 선생님을 모신 것은 지난 일 년 간 교수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입니다. 먼저 제가 전반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재환 신임 총장 취임 관련해서 교수사회가 얻은 점도 있고 미해결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얻은 것은 최악은 면했다는 점입니다. 즉, 교수사회가 반대한 박종구 직무대행이 총장으로 취임 못한 점은 얻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평가할 점은 우리 교수사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재단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총장 선출과정이 원만치 못했지요. 이사회는 자신이 만든 규칙조차 바뀌가면서 게임을 했죠.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것에서 보듯이 시험 도중에 불리하다고 경기규칙을 바꾼 겁니다. 구성이 안 되면 과정이 무효인데 임의기구니까 없다고 치고 그냥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교수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풀지 못한 숙제가 뭐냐 하면 교수 사회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정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의원회 결의를 보면 이 사태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규범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렵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과 풀지 못한 숙제 이런 것을 가지고 세 분 선생님과 어떻게 나가야 할까, 즉 과거에 대한 평가 현재에 대한 해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나갈 길, 이 정도 주제를 정해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요?

이재호: 강명구 선생님께서 이미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무엇보다도 교수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전체 교수 투표를 통해 확인된 교수 사회의 뜻,

즉 총장 선임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새 총장을 선출하라는 말씀을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점을 생각하면 송구스럽고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매 4년 마다 총장선거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총장선거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 총장을 선임하자는 취지는 옳았고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거기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카운터 파트인 재단과 교수회의 관계가 현재 대화가 어려울 정도인 것이 아쉽습니다.

강명구: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하지만 취지는 옳았다, 대화가 어렵다” 이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김장훈 교수님 말씀해주시지요.

김장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재호 교수님처럼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신 분께서는 그런 겸양의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저처럼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교수회를 이끄시는 집행부 교수님들의 용기와 시간과 노력, 들이는 헌신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니까 그런 식의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단하고 교수회, 대학이라고 해야 할지 교수회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가 이렇게 현재처럼 소통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된 적이 전에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먼저 볼 수 있다면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처음이라면 풀기가 정말 난감하고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둘 중에 누군가 바뀌어야 소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다면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온 이후의 상황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교수님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양상은 비슷했지만 정식 기구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교수 협의회라는 형태로 존재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대립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임의단체인 교수 협의회가 아니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정식기구인 교수 회인데도, 즉 대학 거버넌스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마음대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 문제는 또 나중에 집기로 하죠. 김혜선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김혜선: 저는 2009년도에 연구년으로 출장을 나가 있었는데.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았지만 학교 사정에 대한 체감도는 분명히 떨어지죠. 문제가 발단될 때 그 때에 현장에 없었고, 지난해 탁류청론을 함께 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탁류청론을 만들면서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발단이 무엇이었을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과는 분리 혹은 왜곡되면서 갈등만 남아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장기화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는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새롭게 되거나 변모될 수는 있지만, 항상 발단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본질에서 분리되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피로감만 쌓이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이 결과는 무엇을 얼마나 얻었느냐를 떠나서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있던 상황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된 것 같아요. 이슈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장훈: 아까 교수회에 대한 것 말씀드리니까 교수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됐다고 하셨는데, 제 말씀은 과거에도 교수사회와 재단과의 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불통이 심해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풀렸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이렇게 불통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구: 한 십 년 됐죠. 그 전에 폭발적으로 한번 폭발해서 김덕중 전임 장관이 총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한번 크게 번졌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잠잠하고…….

김장훈: 잠잠했다는 얘기는 갈등이 해소된 것인가요?

강명구: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갈등은 있었지만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문호 총장

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수그러들었지요. 그때는 교수 협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뽑았거든요. 물론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수훈 총장이 8일 만에 물러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부딪히게 된 거죠. 이번 경우에는 물상식의 극치로서 암묵적으로라도 교수사회의 견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게 큰 갈등의 시발점이었죠. 네, 다시 논의로 돌아가지요. 김혜선 교수님이 분명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갈등도 많고 본질이 흐려진 측면도 있지만 국면전환으로서 의미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어떤 국면에서 어떤 국면으로 전환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지요.

김혜선: 이번에 갈등의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2009년도 박종구 전 직무대행의 교수 임용부터 갈등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2010년도의 총장 선출에서 재단이 이수훈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하고, 문제가 생기자 바로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넘어간 것이죠. 이 점에서 교수회가 제기했던 문제는 뭐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재호: 첫 번째는 박종구 전 차관이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 졸속적이었고, 학교가 상당한 정도로 규정을 어겼다가, 규정을 따랐다고 해도 그 규정이 사실은 상위법을 위배한 것이었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면서 정년보장 정교수가 된 것, 다음에 교무 부총장 직을 새로 신설하면서 그 자리에 박종구 전 차관을 정교수로 임명해 바로 앉혔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김혜선: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아주대학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인가요?

이재호: 그 과정을 보면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포인트는 조금 추후에 제기되었고요, 사실 그 시점에 주로 제기되었던 것은 학교의 현행의 규정으로 보더라도 무리한 적용이 많았고, 그 실상을 살펴보면 이것은 허겁지겁 자리를 만들고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위상 혹은 격에 어울리는가? 거기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갖고 지적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게 이슈였다면 그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서문호 전 총장 임기가 끝나게 되니까 총장 선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전로부터 주장해왔던 합리적인 총장 선임의 규정을 제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선임하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재단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그야말로 졸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수훈 총장을 임명을 했었죠. 그건 상당히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온전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격에 맞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아르바이트생 뽑는 것보다도 절차가 떨어진다고 표현했는데, 그냥 수사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일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수훈 총장의 연구실적 위반에 대해 심각한 정도의 실적 위반이 문제가 제기되고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돼서 18일 만에 낙마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는 한시바빠 신입 총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 이때 안타깝게도 총장 직무대행으로 1년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박종구 전 차관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상황은 더 꼬여만 갔습니다. 다만 그때 교수회는 이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재단하고 교수회간에 상당한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이었고 예안을 한 것이 재단에서 제안을 한 것이었고, 그랬는데 그 대화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체제가 비정상적으로 오래 진행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번 총장 선임 과정은 많이들 기억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명구: 제가 덧붙이면, 본질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대답에서 잘 정리된 것이 있어요. 대학 사유화가 본질이고 그 와중에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사유화라는 개념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유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격에 맞지 않는 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펀드 투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대학이라는 것이 공공의 기관인데 회사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혜선: 그 점에서 보면 생각을 달리 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호 교수님께서 그 동안의 사건을 정리해 주시니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뜻을 같이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이면의 정신이 사유화라는 개념이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까지 동의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재호: 온도차가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김혜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짚는 것이 의견을 모으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유화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재호: 저는 하여튼 가능한 객관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논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강명구: 김장훈 교수님,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장훈: 제가 이해하는 바로도 대학 사유화 문제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살짝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명구: 사유화 하면 꼭 설립자 김우중씨 얘기 많이 나오죠.

김장훈: 아까 김혜선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실관계’로 놓을 때, 대학 전체 구성원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에 김덕중 총장께서 다시 복귀하셨을 때는 사실 관계가 드러난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 자녀의 의과대학 박사과정 시험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성원의 에너지가 모일 수 있었고 물러가셔야 하는 상황까지 됐지만, 지금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소통의 부재라든지, 재단이 교수회와 다른 생각으로 진행해 왔던 이런 일들을 과연 대학 사유화라고 단정 지었을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손을 놓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교수회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재단과의 대화에 있어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강명구: 사유화라는 개념이 다르다?

김장훈: 개념 보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로 단정을 지어버리면 구성원들 중에서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강명구: 간접적인 물증이라면 제가 여기저기서 보았던 반응입니다. 설립자 이름 석 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켜요. 상당히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물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겠죠.

이재호: 어느 정도면 사유화고 어느 정도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 년여 전 김우중 회장 부탁으로 각 단과대학에 젊은 교수들 한 분씩 만나서 장기적인 학교 발전 플랜을 짜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다든지, 이수훈 전 총장 선임에 있어서도 회장의 의중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뒷이야기라든지, 학교 고위층 몇 분이 자주 베트남에 찾아간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배경화한 사유화 혹은 앞으로

더 진행될 사유화의 전조로 볼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은 진위확인이 쉽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공유도 쉽지 않아요.

김혜선: 제가 처음에 국면 전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느 국면에서 어느 국면으로 전환되었느냐를 말씀 드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전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사실관계가 무엇인가를 여쭙었던 겁니다.

이재호: 아마 많은 분들은 국면전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 상당한 정도로 갈등이 많고 투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김혜선: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무엇이 문제였느냐를 생각할 때, 사유화 이런 표현에 대해 조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면, 결국 드러난 문제의 형태는 소통의 부재였고, 일종의 독단이 아닌가요?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 이것이 문제 아니었나요?

이재호: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 드렸던 ‘격’에 안 맞습니다. 혼자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하는 것이죠.

김혜선: 그러니까 아주대학의 발전, 아주대학교의 구성원들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집단인 아주대학의 발전을 다 바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각자 아주대학이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존중되지 않았고 격에 맞지가 않았던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기 의과대학 교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에이즈의 원인을 지금은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원인을 몰랐을 때는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사인은 감기로 인한 폐렴 이런 것이었어요. 저 사람은 폐렴으로 죽었다 하면서 피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이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그것을 몰랐기에 폐렴 치료부터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고, 집단의 정신 또는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드러난 문제부터 접근을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전의 문제는 사건이 워낙 많았지만 서로가 발전을 생각하는 구성원들인데, 존중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격에 맞지 않게 몰아붙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강명구: 한번 정리하자면, 이럴 수 있죠 이제까지 사람들이 재단과 김우중씨에 대해서 군림 하지만 통치하지는 않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군림하면서 격에 맞지 않는 통치까지 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정도 아닐까요?

이재호: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시행됐던 재단 이사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보면 투표 참여 교수 대다수가 재단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 시점에만 형성된 기류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수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동일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물론 한 사람이 자꾸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되짚어 볼 만한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교수들과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 재단 이사장으로 대표되는 우리 재단이 우리 대학 구성원들을 많이 실망시켰고 그게 그 동안 쪽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많이 생각하고 각성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대우가 망한 뒤에 훨씬 관대함과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쥐고 있는 손아귀의 힘은 계속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원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섭만 하게 되고 자신들의 권한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오랫동안 보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꽤 많이 음으로 양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런 재단하고 어쨌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가시적인 투쟁 일변도로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할 건지, 아니면 워낙 그렇구나 하고 두고 우리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품격을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할 일에 충실하게 나가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김혜선: 그 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연구도 되고 생각을 많이 해 오셔서 정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에서 재단의 역할은 무엇이고 위치는 어디냐 하는 겁니다. 외국 대학의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해 온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맞는 재단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재단이 꼭 교수들의 입맛에 맞춰줘야 되느냐 재단은 재단의 고유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분도 있지 않나요?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변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정신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재호: 정신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학교 발전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재단 혼자서 앞서 나간다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단의 지원 없이 교수들만 뚝뚝하고 해서

발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혜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양쪽이 공감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합하여서 정말 같이 가도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런데 재단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과 우리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간단하게 생각하면 재단이 학교발전에 걸림돌만 되지 말아 달라, 디딤돌 역할을 바랐는데 이제 디딤돌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걸림돌만 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쪽 해온 행태로 보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 거죠?

이재호: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명구: 많이는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평균만 해 달라는 것인데 평균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재호: 제가 서두에 저희가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뜻은 이렇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능력이 있든 없든 현재 우리학교 재단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학교의 발전이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단과 학교 구성원 특히 학교 발전에 제일 중요한 구성원인 교수사회 간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번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전기가 될 만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이수훈 전 총장이 물러나고 재단과 교수회간의 대화가 있었을 때 그리고 이번 총장 선임 직전에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대화가 있었을 때 이게 잘 타결이 됐다면 재단과 교수사회가 발전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었겠다. 그런데 거기서 양쪽이 서로 가지고 있던 그간 누적된 불신 그리고 불안감 더불어 이런저런 생각하지 못했던 일 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기회가 무산되고 오히려 서로 대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된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판단이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상대와 대화를 한다고 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혹자의 지적에 대해서 강력히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정훈: 그렇게 교수회에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교수회가 너무 강경하게 투쟁 일변도로만 나간다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명구: 지난 일 년 간 교수회가 해왔던 협상을 옆에서 지켜보면, 양보 할 수는 것은 다 양보했다고 봐요. 최선을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악을 막으려고 한 것이 교수회입니다. 이기려고 한 게임이 아니라 지기 싫어서 한 게임의 성격도

있었죠. 하여튼 과거를 한번 돌아 봤는데 이러한 불신들이 쌓이고 쌓인 와중에 지금 안재환 교수가 재단에서 총장으로 선임이 되었어요. 하지만 교수 사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의원회 성명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는 안재환 교수가 총장직을 하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총장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불신의 간격,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한 편으로는 총장으로 인정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이니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 인정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동태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그냥 나가자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김정훈: 그렇다고 총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무엇일까요? 만일 다른 대안이 있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없는 상황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자칫 지금과 같은 혼란을 지속시키게 되지 않을까요?

이재호: 사실 교수회 대의원회에서 나온 성명서는 결론이 뭔지가 불명확하다고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과정에 의해서 선출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당위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총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표현도 없고, 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표현도 없고 그야말로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정리하기가 참 어려웠고요. 대승적 차원에서 이 상황을 인정함으로써 정리를 하자고 하는 분부터 원칙적으로 이것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총장으로서도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총장은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따라서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강명구: 교수 사회의 딜레마라고 할까 심적 고민이 그대로 드러날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규범적으로는 옳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혜선: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 총장 임명에 대한 권한이 재단에 있고 이제까지 아주대학에서 재단에서 임명한 총장에 대해 완전 거부한 적은 없지 않나요? 이수훈 교수 때 문제를 삼은 적은 있지만, 제 기억에 박재윤 총장 때는 임용 동의 투표에서 50% 이상의 찬성이 나왔고요. 저는 그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수들은 정말 아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또 다른 교수는 이렇게 왔으니까 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개인적으로는 심정적으로 이번 총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불쾌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재단이 임명한 안재환 총장은 현실

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총장인 거죠. 만약에 임명동의 투표를 한다면 인정 못하실 분들은 의사를 표시하시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체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문제에 다시 묻혀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강명구: 그러니까 인정하자 그런 것이죠?

김혜선: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이재호: 그런데 교수 사회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는 총장이고……. 인정 하니까 받아들이고 안 하니까 거부 투쟁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교수회가 가지고 있던 입장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미 총장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거나 저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하고 정리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대의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었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자신의 자체 모순과 딜레마를 전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대부분의 대의원들의 임기가 이번 2월말까지입니다. 지금 교수회 의장단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곧 새로운 대의원회가 구성되고 새로운 의장단이 오게 되니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판단을 하고 별도의 행보를 하면서 나름의 정리를 하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강명구: 정리하자면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는 엄연히 총장이다, 그러니까 곧 교수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학교가 발전하려면 교수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마음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면 앞으로 하는 것을 봐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재환 체제는 알아서 잘 처신해야 한다는 뭐 그런 것인가요?

김혜선: 아까 국면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새로운 국면은 무엇이나? 그 점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는 아주 대학교 발전이라고 봅니다. 전 구성원들이 함께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총장 체제와 힘을 합쳐서 가야 하지 않나, 지금과 같이 서로 인정하지 않아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에는 다시 정렬을 정비해야 하는 거죠.

강명구: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정태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동태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는 것 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잘하면 도와주고 그렇지 못하면 못 도와주고. 법률적으로는 물론 총장이 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그건 하는 거 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재호: 참고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장 취임식 2일전에 대의원회를 긴급 하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안재환 총장의 인사말이 있어서 그 인사말을 회람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사말에서는 전기를 마련할만한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말하자면 교수회가 그리고 교수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방식에 응하셨던 네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유감표현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현 대의원 가운데 “설거지를 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음 대의원회에 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설거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정운: 그런 면에서 외람되지만 교수회 측에 충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교수회에서 교수사회에 대한 책임감, 대학 사회에 대한 책임감,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인지 굉장히 운동지향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한, 특히 전체 구성원들과 ‘함께’에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총장 모집공고를 지원하지 말자고 한 다든지,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교수회)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을 이렇게 수습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러한 행동이거든요. 지성인으로서 학교 발전과 대학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교수회는 입장 표명 수준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끝내고, 액션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교수회로서는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교수회로서는 수습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을 긋고서 임기를 끝내기도 곤란하고, 남겨놓고 끝내기도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그냥 공식적인 것은 입장표명으로 끝내고 다음 액션은 구성원 중 양심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식으로 하면 큰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수회로서는 자신들이 설정한 큰 선이 무너지더라도 다음에 취할 행동의 여지가 많고 구속 받지 않고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두서없이 했지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영국 국회의 회의 장면을 EBS를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여야가 지금 이렇게 김혜선 교수님과 저처럼 가까이 서가지고,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하냐?”, “나는 이렇다.” “국회가 저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재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단이 싫지만 같이 가야 할 파트너라면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서로간의 설 자리를 없애는 것이 되고,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해야 끝나게 됩니다. 이겨도 개운하지 않은 이런 방법보다는 반대하더라도 상대방이 설 자리를 보아가며 객관적 fact 중심으로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부드럽게 나가고 나머지 액션은 개개 구성원들의 양심이나 신념에 맡기는 것이 교수회에서는 부담을 줄이고 어찌면 그런 면에서 재단하고 대화를 복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명구: 그럼 그 말씀에 의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재단이 교수사회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한다면 그런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재단이 대화 파트너로 전혀 인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교수회 의장이면 교수의 대표로 권위 있는 자리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총장 취임식 이건 뭐건 레터 한 장 보내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임이사 같은 분들은 교수회는 함부로 대해서도 되거나, 그런 생각까지 들게 행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적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양심에 맡겨라 하는데 이렇게 조직화되지 않은 특히 교수같이 개별주의적 성향이 강한 데서는 누군가는 열심히 싸워도 많은 교수들이 가만히 있어요. 실제로 교수회 활동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렇다고 뭘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개인적 희생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김장훈: 참 바른 지적을 하셨고요 저부터 상당히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회 이름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나가는 것은 일이 잘됐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 일이 안됐을 경우에는 스스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말하자면 지금 비슷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강명구: 그런데 만약에 교수회가 대화를 하려 했는데 재단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화를 해야 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 밖에 없어요. 재단의 말을 그대로 행하는 쪽두각시 밖에 없어요.

김장훈: 제 말씀은 입장 표명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수 사회는 반대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입장 표명은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액션까

지 끌고 나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강명구: 입장표명으로 마치자는 말씀인가요?

김장훈: 입장표명만으로, 즉 교수회 의장 성명서와 같은 것으로 마친다고 하여 지금 당장으로써는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사장님 연세도 높고 이사진도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어나가지 않을까요?

강명구: 하여튼 제가 사회가 아니라면 반대논리를 펼 수 있는데 사회기 때문에…….(웃음)

이재호: 제가 그것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상당부분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서…….(웃음)

강명구: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재환 교수의 총장 수행에 대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답변해주시죠. 김장훈 선생님.

김장훈: 대담회 자리로 오면서 김혜선 교수님에게 저는 무소신이 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의를 가지고요. 그렇지만 보이는 잘못된 사실은 반드시 지적하며 입장표명을 하는 이런 수준에서 말입니다. 교수라는 직분이 좋은 것이 학문적 자유의 정신으로 자기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강명구: 단일화된 교수회의 입장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김장훈: 아니요. 전체적 액션이 따라야 하는 입장은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고, 더구나 교수사회에는 교수회의 입장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회는 두 그룹을 다 아울러야 하지 않을까요?

강명구: 결과는, 규범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하자는 거죠? 잘하면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장훈: 잘하면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구요, 저는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고서 만약에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도와주지도 않고 너희가 막아서 못했다. 모르겠어요, 이게 교수회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고 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장을 펼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주시지요. 원래 원론은 누구나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각론에서 자세하게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김혜선: 가령 보직의 예를 들자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들어가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평가는 해야겠지요. 어떤 결과물에 대해 평가를 하되 일을 할 수 있게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명구: 보직을 통해서 도와주자 이것이 한 예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재호: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바람직한 모습은 축제처럼 충장을 선입하고 다 같이 이분을 중심으로 학교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고요. 첫 단추가 잘못되었으니 끝까지 잘못 가겠다는 말은 안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된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첫 단추는 선입 절차부분이고요. 따라서 그 점은 그분이 지고 가야 할 몫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이 추진하려는 의도나 이런 것이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해서 참여해서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아닐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각 교수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고 판단하셔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이분 도와주자 기치를 내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반대도 아니고요.

김혜선: 그런 선언은 없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단추가 잘못 끼인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 관여하는 것이 심정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하더라도 교수회의 흐름에 따라가 주기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치를 내걸고 도와주자 말자 하는 것은 아니라도 교수회가 저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있을 때 행동에 제약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입니다.

이재호: 그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교수회가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이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든 부탁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그 면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쪽은 안재환 총장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사규에 나름의 유감 표명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넣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뺐지요. 그것은 재단의 시각을 고려한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분이 지고 갈 책임이고 짐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명구: 여담이지만 도와주고 싶어도 임명권은 모두 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웃음)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 교수회의 활동이란 나쁜 케이스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지요.

김정훈: 제 생각에도 학교의 일이나 위원회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교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과 철학에 따르는 일이라 봅니다. 옹음을 위하여 교수사회가 움직이려면 이러한 자유로운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양심들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반드시 재단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재단도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사회와 재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서로 간에 영향을 받을 길이 없어서 상황은 악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학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되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교수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명구: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지성인 사회의 정신이 잘 구현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면 꼭 ‘예’, ‘아니오’를 갈라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이 흔치 않지 않나 생각이 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 학교 전체나 교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나 재단과 관계라던가 정리하는 쪽으로 간략하게 한마디씩 해보시죠.

이재호: 저는 학교에 있어서 근래 들어서 드러난, 교수들과 관련된 문제 두 가지 정도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잘 정리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수들의 연구 진실성 위반에 관해 우리 학교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 진실성 위반이 자칫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예들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했던 학교의 행정 시스템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교수회와 대학본부가 함께 적절하고 합리적인 안을 개발하고 모든 교수들에게 공표해서 우리 나름의 컨센서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인사와 관련해서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단과대학별 인사 위원회 혹은 시스템간의 불일치가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의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크고요. 이것 또한 교수회와 대학본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명구: 같이 나가야 할 발전의 첫 단추를 같이 풀어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로도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장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오갔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대학사회의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인 학생에 대해서 교수회가 부모 같은 심정으로 선배의 심정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요. 학생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서 자기가 별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문제인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당구장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의 아르바이트는 대개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사정이 그러니 학교 공부는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립대학에 다닐 정도면 그런 건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고, 그런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제 교수회나 교수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문제라던가 숙박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학생들이 당면한 어렵고도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교수회 차원에 잘 살펴보고 대학 당국과 얘기하거나 혹은 학교 밖 단체와 얘기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수회 쪽에서도 학생복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계획도 마련할 수 있는 시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명구: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지요. 학생들의 문제는 학생회가 구성원인 학생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든가 하면 관심을 보였지 학생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못 썼죠. 이것은 아마 학내 문제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누구나 똑같이 갖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학생복지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선 교수님.

김혜선: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이 공동체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재환 총장 체제가 교수사회로부터 충분한 마음을 얻고 시작하지 못하였기에,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마음들이 많이 떠나가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갈등을 겪으면서 그런 문제들이 증폭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빠뜨리지 말고 같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두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면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서 새롭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죠. 아주대의 발전이라는 큰 타이틀로 봐서는 과거의 여러 가지 갈등 역시 그것을 위해서 있었다고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명구: 어떤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 좀 이런 얘기 그만하고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만드는지 생각할 때가 됐는데 현실은 매일 답답하다고 하시더군요. “오늘은 어제 너희가 걱정했던 내일이다 (Today is the tomorrow you worried about yesterday.)”라는 격언이 있어요. 결국 연속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비록 첫 단추는 잘못 켜 감이 있지만 신임 안재환 체제가 무언가 지금까지와 다르게 스스로 단추를 조금 풀고 새로 끼워서 시발점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재호: 혹시 이 대담을 재단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 보실 것 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대학은 좋은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도 좋은 것 같아요. 대우가 잘못된 것은 참 나쁜 운이었지만 그 외의 상황을 보면 광교신도시 만들어 진 것도 그렇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석 선장 임원도 그렇고요. 분명히 계속 발전할 여지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째서 그런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재단이 꼭 잡은 힘 좀 빼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사장님을 포함한 이사회의 인적 쇄신도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강명구: 사실 키포인트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주대학은 교수진도 우수하고 수도권에 있고 법대 있고 의대 있고 약대 있고 공대 있고 아주 훌륭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잘 못치기만 하면 되는데 교수들 잘 할 것이라고 좀 믿어주면 된다고 봐요. 교수사회 절대로 그렇게 막가지 않습니다. 믿고 합심하고 못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학교 및 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대학평의위원회 자문 내용

교수 회

1. 법인이 약속했던 전입금 중 16억여 원이 감소되었다. 특히 전입금 감소 통보가 2011년 1월 중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져 학교 회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한편 삭감액 16억여원은 법인이 그간 의료원에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평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 받고 2010학년도에 반납한 17억여원과 비슷한 액수이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본교에 약정한 전입금을 줄여 의료원에 줄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학부 등록금 1% 인상을 액수로 환산하면 7억여원이다.

2. 법인의 법정부담금(교직원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액수) 전입액 비율이 2000년 직후 0%에서 서서히 증액되어 법정금액 대비 2008학년도 44%, 2009학년도 50%로 향상되어 왔으나 2010학년도에는 17%, 2011학년도에는 29%로 대폭 줄어들었다. 법인의 재정 형편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 아니라면 이 비율을 2008, 2009학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판단한다.

3. 웰빙센터 건축을 위해 의료원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기금

의 이자 수입 (년간 3-4억원으로 추정)이 의료원으로 전입되지 않고 있다. 이자 수입은 의료원에 돌려주되 매년 일정 액수를 법인 운영비로 지원하는 등 양성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2011학년도 의료원 본예산 편성에 있어 매년 20억-25억 정도를 임대료와 발전기금으로 기여하던 의료재료 공급업자의 기여가 2011년도 의약품 실거래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액 삭감되어 있다. 부분 삭감이 적절하며 차제에 의료재료 공급체계에 변화를 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2011학년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최종 학년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재정적인 비용과 수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익이 비용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 비용 혹은 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현황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예산 자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박영무 (기계공학부)

지난 2월 1일 제 29차 평의회회는 2010년 추가경정예산과 2011년 본예산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재단은 알은 눈속임으로 법정 부담금 납입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2007, 2008, 2009년 3년간 매 결산 때마다, 병원 지하 1층 점포들의 임대료를 재단이 받은 뒤, 이를 병원에 돌려주는 과정에서 매년 5억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었다. 수차례 지적을 받은 재단은 그 동안 돌려주지 않았던 17억원을 2010년에 병원에 돌려주었다. 평의회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

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재단은 26억원으로 약정하였던 전입금을 10억원으로 줄인 것이다. 줄인 금액은 16억원, 재단이 병원에 돌려주었다는 17억원과 비슷한 액수이다. 결과적으로 재단은 병원에 17억원을 돌려주면서 본교에는 16억원을 덜 주었다는 뜻이 된다. 우리 대학은 약학대학 설립, 종합관 건축 그리고 펀드 투자 잘못이 맞물리면서 재정형편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재단도 잘 알고 있다. 16억원을 덜 주겠다고 통보한 것도 2011년 1월, 2월 말이면 회계연도가 끝나는 것을 재단도 알고 있다. 재단의 자의적이며 독단적인 행위가 학교를 어렵게 한다.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의 4대 보험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재단이 납부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우리 재단은 2009년에 27억 정도의 잉여금을 적립한 바 있다(이사 회의록 참고). 재단은 기금을 축적하기 이전에 법정 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학교교비가 대신 부담한 재단의 법정부담금 누적액은 120억원을 상회한다. 참고로 등록금 1% 인상은 7억원의 수입을 의미한다. 학교의 교육 환경은 몹시 어렵다.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그 책무는 다하지 않고 인사권 행사(총장, 학장 등)에만 집착하고 있다. 우리 재단은 스스로 부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박종구 전 총장직무대행은 예비비 2,000만원을 총학생회 간부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하였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부적절한 물질적 보상으로 유착되어있다는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작년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이름의 장학금이 발견되었다. 소위 “제29대 총학생회 특별복지장학”이 그것이다. 장학금은 명분과 실질 그리고 시행의 모든 과정이 교육적이어야 한다. 9억의 예산이 배정된 이 장학금은 전무후무하게 총학생회 이름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서류 제출도 학생회에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자문과정에서 학생대표

평의원조차 모르고 있었던 소위 ‘글로벌 문화탐방’ 사업에 예비비 2000만원이 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생 자치기구 임원 및 총학생회 집행부 13명이 2박 3일로 해외에 다녀오는 총비용 2,260만원 중 2,000만원을 학교가 예비비에서 부담했다는 것이다. 기획처장은 “예비비는 필요에 따라 총장(직무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기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원의 신뢰를 받지 못한 채 대학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부정의 한 단면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직무대행체제는 끝났지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우리 대학이 ‘대학다움’을 유지하는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학내 최고 심의 기구이다(학칙의 최종심의, 예결산자문, 개방이사 추천위원 추천 등). 예결산 자문과 학칙 심의 등의 과정에 아주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있으면 그 역할은 더욱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평의회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학내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대학 평의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대학 구성원들과 더불어 우리 대학이 건강하고 진실한 교육과 연구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수막 시위를 중단하며

교수회

지난 2월 9일부터 졸업식, 입학식 당일을 제외하고 매일 점심 교문 앞에서 진행한 현수막 시위를 일단은 2월 28일부로 중단합니다.

상기해보면 교문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시작한 것은 재단 상임이사가 총무팀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 확실시되는 교수회 현수막 철거가 그 발단이었습니다. 현수막이 철거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도 ‘재단이 학교의 질서를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라고 교수회 대의원회는 판단했습니다. 과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던” 우리 재단이 현 윤원석 이사장 체제를 10년 이상 유지하는 동안 이제는 상임이사가 총장, 처장 무시하고 직접 지시하는 “막장” 사학의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탄할 만한 일이며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현 교수회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늘, 그간 많은 교수님들이 교문 앞 시위에 동참함으로써 잘못을 명확히 지적하는 곳곳함을 보였다고 자평하며 참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문 시위를 마치고 향후 교수회 활동은 새로운 집행부와 다수의 신임 대의원을 맞게 되는 교수회 대의원회에 맡겨 드립니다.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마지막 활동으로 본래 자리에 현수막 재게시를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식

I. 교수회 대의원회 의장 및 감사 선임

2011년 2월 21일부터 2월 24일에 걸쳐 의장 및 감사 2인에 대한 선출투표가 시행되었다.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사회과학대학 김철환 교수가 의장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업무 감사에, 경영대학 박경주 교수가 회계 감사에 각각 선임되었다. 임기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이다.

◇ 투 표 율

대학	유권자(명)	투표자(명)	투표율
공 과 대 학	83	64	77 %
정보통신대학	63	33	52 %
자연과학대학	40	24	60 %
경 영 대 학	36	18	50 %
인 문 대 학	27	23	85 %
사회과학대학	32	26	81 %
법학전문대학원	23	7	30 %
간호/의과대학	217	110	51 %
단과대학 미소속	18	11	61 %
합 계	539	316	59 %

◇ 찬 성 율

직위	성명	투표자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찬성율(%)
의 장	김철환(사회과학부)	316	271	42	0	3	85.8
업무감사	이진국(법학전문대학원)	316	294	13	1	8	93.0
회계감사	박경주(경영학부)	316	285	23	1	7	90.2

II. 총장 선임

재단과 교수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은 1월 17일 재단 이사회에서 후보 선임 절차를 완료하고 2월 1일 자로 안재환 교수를 제 14대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교수회 대의원회는 교수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총장선임 방식에 의거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교수회는 안재환 교수의 총장선출 이후 이 모든 파행의 책임을 지고 윤원석 이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II. 펀드 불법 투자

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21일-24일에 시행되었던 교과부의 실태점검이 있었고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이 통보되었다. 결론적으로 교수회의 주장 18건 중 14건에 있어 학교 또는 재단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우리 대학에는 기관 경고와 재발방지대책 등 행정상 조치 요구가 전달되었다고 한다. 대학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 대학 본부의 터무니없는 비밀주의와 단일한 현실 인식의 결과로 결국 외부 기관의 개입을 불러온데 대해 우리 대학 내부의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펀드 불법투자 건의 후속조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소 식

IV. 박종구 전 차관 관련

박종구 전 차관의 부당한 정교수 임용 과정에 대해 교수회 차원에서 교과부에 그 위법성 여부를 확인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1월 31일 답변서를 보내 면접 및 공개강의를 생략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의 임용규칙에 특별채용의 경우 신입교원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더불어 총장이 후보자 지원 분야를 변경하고 후보자 지원서 등을 접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바람직한 교원임용의 절차가 아니다”라고 답을 보냈다. 후속 조치로 교과부는 2011.1.13. 우리 대학에 상위법에 위배된 임용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우리 대학은 개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VI. 평의회 교수평의원 선출

대학평의회 교수평의원으로 수고해온 박영무, 오동석 교수가 안식년을 갖게 됨에 따라 후임 교수 평의원 2인을 선출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대학본부에서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며, 향후 단과대학별 추천위원 구성 투표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2인의 교수평의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 교수회에서 추천하던 단순한 선출 과정이 이처럼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기 위한 재단의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1년 전 추천위원회가 어렵게 구성되고 그 회의에서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만장일치로 건의하고 이를 회의록에 남겨 놓았으며, 재단과 교수회의 대화 과정에서 이를 상임이사에게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규정을 손보지 않아 교수들에게 불편을 줄 수 밖에 없는 불필요한 과정이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재단의 무능과 무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주는 사건이다.

V. 개방이사, 감사 선임

재단이 올해 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감사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대학평의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3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 즉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재단의 정관 내용이 정부의 시행령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평의회가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현 정관의 내용이 시행령에 어긋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았다고 한다. 다만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 정관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이 동시에 첨부되어 개정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VII. 사학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외 21인의 국회의원이 2월 17일 사학법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 사학법은 개방이사제, 대학평의회 등 사학재단의 견제 장치를 폐지하고, 학생 등록금을 재단이 쓸 수 있게 하여 재단의 재정권한을 확장하고 인사위원회를 지문기구로의 격하, 재임용 과정에서 총장의 제청 생략, 재단의 인사권 확장 등 전방위적으로 사학 재단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학의 사기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직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당론으로 채택되기 전인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아주대학교 교수회가 이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편집위원회

법인 상임이사의 지정 주차 공간

울곡관 동쪽 출입문 바로 앞 주차장에는 세 사람을 위한 주차공간이 지정되어있다. 이사장, 총장, 그리고 법인 상임이사가 그 대상이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불법주차 방지용 표지판이 해당 차량 부재 시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고, 불법주차 시 견인될 것임을 알리는 알림판이 화단 한 구석에 꽂혀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번호가 주차장 바닥에 흰색 페인트로 쓰여 있다. 간혹 지정주차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원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장의 출근일인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이 특히 그러하다.

비록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사장과 총장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대학이라는 곳이 회사나 군대가 아니니 상식 수준에서 상대의 권위를 인정한 결과이다. 만일 이런 사안들까지 명문규정화해야 한다면 그 조직은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이 물리적 강제력 없이는 통제가 어려운, 갈 데까지 간 조직이다. 그리고 그런 조직은 쓰잘머리 없는 곳에 힘을 쏟아 망하거나 설사 생존하더라도 비효율의 고통으로 신음할 것이다. 왕왕 ‘공식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규정들은 ‘비공식적 과정’이라는 빙산이 수면위로 내민 부분을 편의적으로 지칭함에 다름 아니다.

얼마 전부터 울곡관 동편 주차장의 주차 관행이 소리 없이, 슬며시 바뀌었다. <사진>에서 보듯이 법인 이영현 상임이사의 전용 주차 공간이 새로 생긴 것이다. 바닥에 9999 글자도 선명하다. 물론 <협조 부탁드립니다.> 입간판도 세워져 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생긴 이래 여러 명의 상임이사가 거쳐 갔지만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다. 속칭 말하여 너무 ‘쪼잔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재단 상임이사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뭐 이런 일로 문제를 제기하냐고 충고할 수 있다. 한 마리의 제비가 꼭 봄을 알리지 않으니 타당한 충고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도 있다. 일회성이 아닌 사안의 ‘맥락’ (context)을 고려하자면 전자보다 후자가 더 의미 있다. 그러니 9999가 새겨질 즈음 아주대학의 ‘맥락’을 살펴보자.

재단은 “균립하지만 통치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시된 흔적이 도처에 산재해있다. 김우중 설립자의 지시로 대학 현안을 논의한다고 재단이 중간에 다리를 놓아 직접 각 단과대학장들에게 ‘젊은’ 교수들 좀 모아 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 바로 작년의 일이다. 당시 총장은 핫바지 저고리였다. 교수회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을 걷어치우라고 총무처에 직접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안다. 정관을 개정하여 총장의 보직자 제청권을 재단이 거두어 간 것도 이즈음이다. 그러니 총장은 대학 운영하려면 재단 사무실로 뺄진나게 결재 받으러 다녀야 한다. 한 술 더 떠, 지난 달 2월 이사회 회의록은 재단이 임기 전 이라도 보직자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개정하였다. 펀드투자 관련 분식 회계가 교과부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은 것과 박종구 총장 직무대행의 불법 정년 교원 임용은 굳이 거론치 않는다.

맥락이 이러하니 걱정이 없기 힘들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을 그냥 흘려듣기 어렵다. 교수들의 걱정이 기우(杞憂)이길 바란다. 기우가 아니라면 적잖은 교수들이 주차장 바닥에 자기 차번호를 새겨 놓고 지정주차석이라 우겨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어렵지만 한 말씀 드린다. 좀 자중하시라. 9999 새기는 대신 시간 나면 대학과 기업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쯤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란다.

